



네파가 SS시즌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하이플로우'는 트레킹화의 '안정성'에 러닝화의 '쿠셔닝'과 '탄성'을 더한 고탄성 쿠셔닝 트레킹화다. 어떤 지형의 트레킹에서도 최상의 착화감과 추진력을 제공한다. 사진은 하이플로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네파

핏 살린 '트레킹룩'으로 봄나들이 텐션 업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산책로, 등산로를 걷는 트레킹을 이르는 '어반 하이킹'이 주목받고 있다. 집 주변과 근교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이 건강한 취미로 각광 받으면서 트레킹족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본격적인 트레킹 시즌인 봄을 맞아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신제품을 출시하며 일명 '하이텐션 트레킹룩'을 제안한다.

●고탄성 쿠셔닝 갖춘 하이텐션 트레킹화 '하이플로우'
네파가 이번 SS(봄여름)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플로우'는 트레킹 활동 시 인기 좋은 고탄성 쿠셔닝 트레킹화다. 탁월한 추진력과 쿠셔닝을 바탕으로 '텐션'을 높여주는 하이텐션 트레킹화로 선보인 제품. 기존 트레킹화가 지닌 안정성에 러닝화의 특성인 쿠셔닝과 탄성을 갖춰 어떤 지형의 트레킹 활동에서도 최상의 착화감과 추진력을 제공한다.

아웃솔의 고탄성 에너지플로우(ENERGYFLOW) 플레이트는 자연스러운 반발탄성으로 추진력을 극대화하고, 운동에너지의 효율을 증가시켜 최적의 활동성을 선사한다. 발의 뒤꿈치를 방지해 안정적인 트레킹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부산 신발산업진흥센터 '워킹화에 대한 생체역학적 성능평가'에서 추진력과 충격흡수 기능 등을 검증받기도 했다.

소재의 기능성도 뛰어나다.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이 적용돼 아웃도어 활동 시 필요한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을 갖췄으며 에너지 샷 아웃솔 바닥 전면에는 부틸 고무 30%를 함유해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한다. 가볍고 뛰어난 통기성의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와 무재봉 공법은 장시간 착용에도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보아핏 시스템이 적용돼 끈 없이 다이얼을 감아 빠르고 정교한 피팅을 할 수 있다.

네파, 고탄성 트레킹화 '하이플로우' 출시
지형 불문 최상의 접지력·추진력 보여줘
다이어로 정교하게 발 감싸 뒤딛림 예방
방수·방풍·투습 갖춰 오랜 착용에도 쾌적
브리즈2 아노락 등 자켓으로 스타일 완성



네파 하이플로우는 남녀 공용 블랙과 화이트(사진), 남성용 그레이 블루 네이비, 여성용 그레이 핑크 라이트그레이 등 총 8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취향에 따라 골라 신는 재미가 있다. 사진제공 | 네파

하이플로우 남녀 공용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 남성용은 그레이, 블루, 네이비, 여성용은 그레이, 핑크, 라이트 그레이 각각 3가지 색상으로 나왔다. 취향에 맞게 골라 신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네파는 '추진력 있게 밀어주GO, 안정감 있게 잡아주GO'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하이플로우 TV 광고도 선보였다. TV 광고는 반려견 트레킹, 바다길 산책, 동굴 트레킹, 트레킹 출사, 슬로 캠핑, 해안 도로 산책 및 낚시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자유로운 트레킹 활동을 '하이텐션'으로 즐기는 모습을 전달한다.

각 장면에서 추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하이플로우만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자연스럽고 활기찬 트레킹 무드를 선사한다.

●아노락 자켓으로 완성하는 하이텐션 트레킹룩

봄철 트레킹을 즐길 때에는 일교차를 고려해 기능성 방풍자켓 착용을 추천한다. 방풍과 투습이 가능한 기능성 자켓은 땀과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쾌적한 착용감으로 기분 좋은 트레킹 활동을 즐기도록 돕는다.

네파 '브리즈2 아노락 자켓'은 조거 팬츠와 함께 힙한 아웃도어룩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아노락 스타일의 방풍자켓이다. 기능성 타슬란 소재를 적용해 내추럴한 터치감이 특징이며, 자연스러운 구김 가공으로 간절기 시즌 가볍게 착용 가능하다. 목 부위에 스냅 버튼이 적용돼 멋스러운 착장도 가능하다.

'베이퍼 스트레치 자켓'은 뛰어난 활동성에 쾌적한 착용감까지 갖춘 기능성 방풍자켓이다. 15데니아 초경량 나일론 스판 우븐 원단으로 경량성 및 신축성을 극대화했으며, 사이드 및 등판에 트리코트 원단을 적용해 활동성도 강화했다. 하이큐사의 스마트 텀프 가공을 적용해 활동 중 체온 상승 시 일정 온도를 낮춰주는 냉감 기능성을 제공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풀 스위트 룸.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 오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희엔션은 22일 서울 역삼동에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을 공식 개관했다. AC 호텔은 전 세계 180여 곳에서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운영하는 메리어트의 셀렉트 브랜드다. 말레이시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는 '목시 서울 인사동'을 운영 중인 희엔션이 운영사를 맡았다. 지상 21층에 274개의 객실과 올 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루프탑 바, 라운지, 피트니스와 사우나 시설, 키즈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호텔공간은 프라이빗을 중시하는 호캉스 트렌드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해 구성했다. 국내에서 셀렉트급 이상 호텔 중 최초로 객실 테라스에 프라이빗 풀을 배치했다. 3층 키즈 맞춤형 놀이 공간인 '리틀챔피언'에서는 놀이시설 10여 가지를 상시 운영한다. 호텔 곳곳에서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설치미술품과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재혁 기자 oldfield@donga.com

에어서울, 30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에어서울은 30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스케줄로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한다. 현재 사이판은 양국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트래블버블 지역이다. 최근 신혼여행을 비롯해 여행객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국가 간 격리 면제 상황 등을 보며 국제선 운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어서울이 여행 수요를 겨냥해 국제선을 운항하는 것은 2년여 만이다. 에어서울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28일부터 국제선 19개 노선을 모두 중단했다.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쿠킹 클래스 진행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은 4층 페메중 레스토랑에서 24일부터 한 달간 프랑스 요리 쿠킹 클래스를 실시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의 총괄 셰프인 안세실 드젠스가 직접 진행한다. 성인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다. 최대 정원은 6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간 진행한다. 매 기수마다 프랑스의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에서 즐겨 먹거나 유래한 메뉴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24일 첫 수업을 하는 1기의 수업 지역은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가 선정됐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5일 (금) 음력: 2월 2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부인이나 자식, 근친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의 화목하게 된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 방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살펴서킴이 중요하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스스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타인의 도움도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오늘의 날씨			25일(금)
서울 20/60	인천 20/60	춘천 20/60	
7 19	8 16	4 19	
강릉 30/60	대전 10/60	전주 10/60	
11 20	6 20	7 20	
광주 20/60	대구 10/60	부산 10/60	
7 19	7 19	10 17	
창원 10/60	제주 10/7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7 17	10 23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9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재부장 양형모 사인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